

# “여행 추억보다, 젊은불자 양성 더 중요”

## 전주 금선암 불자부부 12쌍 회갑여행비로 수계법회 지원

“회갑을 맞아 여행으로 추억을 쌓는 것 만큼, 젊은 불자들을 키워내는게 의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계를 받으며 불자로서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하는 젊은 장병들을 보니, 여행가는 것 보다 백배 전배 낫다고 생각되네요.”

회갑을 맞은 불자들이 회갑 여행경비를 모은돈으로 난산현연소 훈련병들의 수계법회를 열어 화제다.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 심선회 회원 중 올해 회갑을 맞은 갑오생 불자부부 12쌍은 7월 12일 난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수계법사로 나서 신병교육 중인 훈련병 3500여 명에게 계를 내렸다.

금선암 신행단체인 심선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봉 중부대 교수 등 12쌍의 갑오생 불자부부는 회갑여행을 계획했지만 최근 세월호 사태를 비롯해, GOP총기안사 등으로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줄 것이 없

을까를 고민하다 수계법회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김세봉 심선회 회장은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해 해줄 것이 무엇인가, 또 그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다”며 “수계법회를 열면 힘든 군생활에서 장병들이 불심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를 계기로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는 힘을 갖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수계법회 법문도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는 것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수계법사 도영 스님은 법회에 앞서 최근의 군부대 사고로 인해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훈련소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수계법회에서 스님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극복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인재로 나라를 빛내고 모든 국민이 잘살게 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



이날 지도법사로 나선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및 심선회 회원들이 기념촬영중 웃고있다.

란다”고 당부했다.

수계법회에서는 수계뿐만 아니라 훈련병들이 힘든 훈련생활 중 잠시나마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법회 후 댄스그룹과 전자바이올린 연주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법회 후 덕산 스님은 수계법회를 지원해

준 불자부부들에게 작은 소연을 베풀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위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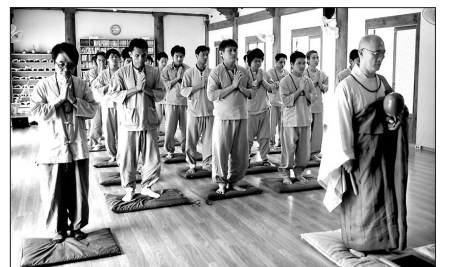
한편, 이날 수계법회는 공주 동학사 강원학인 스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포교사, 불교어머니회 회원, 금선암 심선회 회원과 불자 등 200여명도 함께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송광사, 외국인 노동자 초청 템플스테이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청해 특별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송광사는 7월 12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북 완주 국가 3공단과 익산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미얀마 근로자 45명을 초청해 한국의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예불, 윤력, 참선, 발우공양, 108염주 만들기, 연꽃 명상등을 체험하며 한국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오랜 타향살이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며 오랜 신명활동을 하지 못한 갈등을 해소하며 오랜만에 고국의 동료들과 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된 묘영(38세, 익산공단 근무)씨는 “한국에 와 오랫동안 절을 찾지 못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서 고국의 친구들과 함께 불공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축제 7월 11일 개막

새우가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인 ‘하소백련지’로 유명한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가 개최하는 제13회 하소백련축제가 7월 11일 열렸다.

‘사랑, 이별, 고통, 정토 세월호에 묻다’를 주제로 8월 17일까지 열리는 하소백련축제는 매 주말마다 시낭송, 아코디언 연주, 통기타 연주, 태권 시연, 전통무용, 노래마당 등 차별화된 각종 공연이 열린다.

11일 개막식에는 판소리 인형극 ‘춘향’, 김광석 시인의 시낭송, 소프라노 정수희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12일에는 세월호의 아픔을 무용으로 녹여낸 행위예술 공연 ‘세월호에 묻다’가 공연됐다.

이밖에 선동철 작가의 전통창조 작품전과 부채만들기, 어린이 캠프마을, 전통 활 만들기 등의 체험코너가 마련됐다.



세월호의 아픔을 퍼포먼스로 표현한 ‘세월호에 묻다’ 공연 장면

도원 스님은 “사회적으로 세월호 참사 등 여러가지 혼돈이 있어서 축제의 주제도 ‘사랑, 이별, 고통, 정토’로 정했다”며 “세월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축제로 꾸몄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선운사, 고창 뉴타운에 불교회관 세운다

### 7월 14일 교구 운영위원회서 발표, 토지 매입해 지난 5월 등기완료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7월 14일 대웅보전에서 2차 교구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구총회에서는 고창에 건립 추진 중인 불교회관에 대한 계획이 공개됐다.

주지 법만 스님은 고창 뉴타운 내 불교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매입을 진행해 5월 27일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만 스님은 또 토지 매입에 따른 4억 원의 기채 중 일부를 상환했으며 나머지 부채도 금년 중으로 모두 변제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창 뉴타운 내 부지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고창지역 불교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고창불교회관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선운사는 올해 연말 건립 예정인 고창, 정읍, 부안의 광역 보육지원센터도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위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고창 뉴타운 불교회관을 비롯해 광역보육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면 기존 승려노후수행마을, 고창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과 더불어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귀농자,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와 계층을 불교계가 복지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교구총회에서는 선운사 선거관리위원회 5명중 임기가 만료된 4명의



선거관리위원 유임을 결의했다. 이로써 24교구 선운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에 원공 스님, 위원에 종명, 지공, 지안, 성락 스님 등 5명이다.

한편, 이날 교구총회에 앞서서는 선운사 초대주지를 역임한 남곡당 운영대선사 31주기 추모다례제도 열렸다. 이날 다례제에는 남곡스님의 문선 재공, 재석, 재정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 원로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재공 스님은 남곡문도를 대표해 대중들에게 감사와 표하고 “수행과 불사에 남다른 열력을 지녔던 은사스님의 유지와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곡 스님은 1963년 불교정화운동 당시 비구대처간 화합에 노력했으며 1966년 24교구 선운사 초대 주지로 선운사가 람을 세움게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첫 음반 낸 백양사 포교국장 수안 스님

### 첫 음반 ‘길을 떠나며...’ 발표... 총 10곡 수록

노래하며 포교하는 수안 스님<오른쪽 사진>이 첫 음반 ‘길을 떠나며...’를 발표하고 음악포교에 나섰다. 백양사 포교국장 수안 스님은 타이틀곡 ‘그랬구나’를 포함해 10곡이 수록된 정규음반을 발표했다.

음반에는 수안스님 작사 9곡에 광주지역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인디언수니, 광우영 음악감독이 곡을 붙여 만들었다. 마지막 곡은 류근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들었다. 음반의 자켓은 스님이 솜대를 만드는 모습을 담았고, 단청작가 조혜영 씨의 단청과 산사의 사진들로 꾸며졌다.

“포교활동을 하다가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친구들이 불교를 친근감 있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친근감 있게 이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노래를 하는 것이고, 노래말속에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이번 음반은 포교의 다양한 방법을 연구한 수안 스님의 2년 간의 고민 속에 나왔다.

“가녀린 가지마다 소복히 쌓인 눈 물끄러미 바라보는 내 눈도 시러웁다. 그랬구나<그랬구나>,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참 다행이다>’ 노래에 나오는 가사말은 스님이



젊은 청년들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다.

그래서 스님의 노래는 이야기와 함께 한다. 가사말을 이야기 하고, 삶의 즐거움, 슬픔 등 불교적 이야기로 풀어내어 관객과 호흡을 한다.

수안 스님의 노래 포교는 지금 하는 직책이 맡게준다. 이미 조계종포교원 산하 대학생전법단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백양사 포교국장겸 템플스테이 담당 그리고 광주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제작비도 직접 솜대를 만들어 마련했다. 음반 판매의 수익은 대학생 장학금과 해외불교봉사활동 지원금에 사용된다고 한다. 향후 일정에 대해 “편안한 토크 콘서트를 다양한 곳에서 진행하고 싶다. 사찰, 템플스테이를 포함해 젊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음악회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증심사, 수불 스님 초청 특별법회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의 특별법회가 광주 증심사에서 개최됐다.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는 7월 11일 취백루에서 2014명 사초청법회-무등(無等)에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연광 스님, 이민수 광주 불교방송 사장을 비롯해 증심사, 범어사, 안국선원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 수불 스님은 종교의 사회

적 역할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가치와 불자들의 올바른 수행법과 자세에 대한 자세한 법문을 펼쳤다.

스님은 이어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핵심은 포용이다.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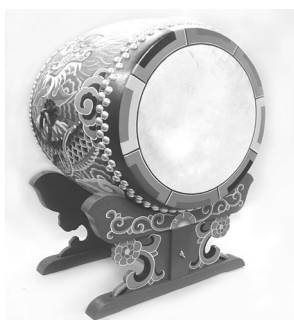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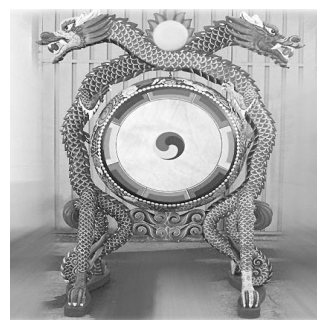
## 금강대-논산고 교육연계 MOU협약

금강대가 논산지역 교육 체계화에 나섰다. 금강대 정병조 총장과 논산고 조익수 교장은 양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5일 오후 금강대 회의실에서 MOU 체결을 통해 양교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대학과 고교 간 MOU 체결로 상호 연계교육을 통한 교육적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협약을 통해 양교는 연계교육 활성화, 교육정보 및 교육자료 교환, 진로 및 진학을 위한 교수진 특강지원 등에 합의했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연속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협력체로 자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양지국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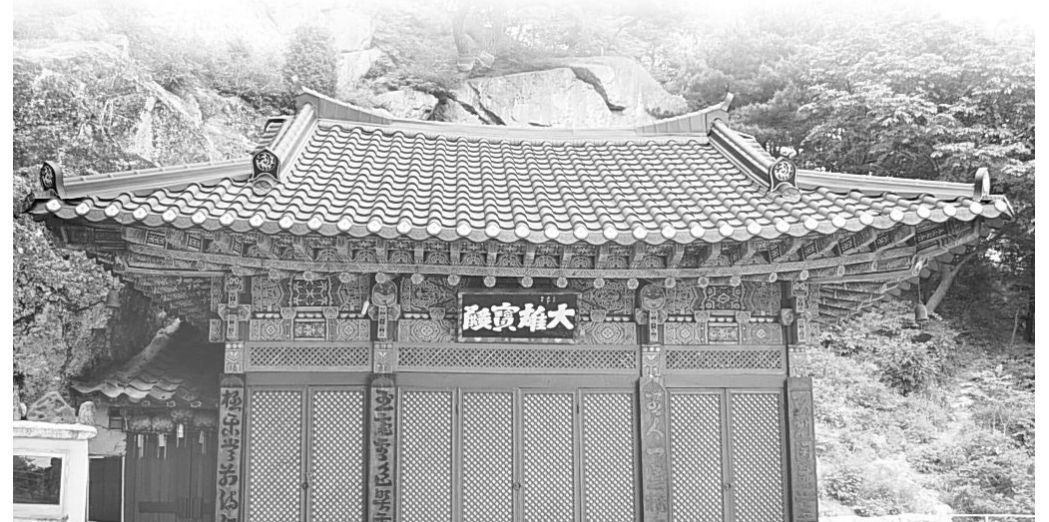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